박복덕

오늘은 폭염, 명절을 하는 날.

"타임캡슐" 처럼 오늘의 '나'를 기록하여 1년 후 내년 2015년 5월 12일에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나'의 기록이 1년 후에는 '역사'가 되는 것이라니 왠지 새롭게 느껴진다.

오늘의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다'라고 느낀 것을 하루!

달래사랑과 나눔 자원봉사를 하루 봉사활동을 마친 날!

아이들과 만남이 즐거운 하루!

지난 두 달 동안의 여행이 나에게 힘겨움 주고 있는 하루!

모진 CBS 영화음악에서 '카르마디엠' 이라는 말이 가슴에 남는 하루!

매순간 집중하고 즐겁게 살고 싶은 오늘의 나!

내년의 '나'의 모습이 궁금하고 기대하고 싶은 마음의 나!

내년에는 보다 삶이 좋은 사람과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나!

교실 바닥에 누워 아이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슴! 자유롭고 즐겁다.

내 옆에 라빈이가 나를 예쁘게 집중하며 웃을 수 있다.

사랑하고 소중한 라빈이!

사월하지만 딱딱해서 바닥에 내상을 입게 다시 웃을 수 있다.

옆에 앉은 지은이가 나에게 이야기한다.

"샘! 스페이 다녀온 지 몇 일 지난 오늘" 이라고 말해요~!

"응~, 좋은 시간이야~"

5월 2일 오전 7시 인천 공항 도착하여 일주일이 지나고 첫 월요일,

오늘의 내가 나의 역사를 만들다. 즐겁게 열심히 사고 싶다~!!

제자의 말이 그대로 되었으면~! 내년 아리쌤이 내 생일이니까~ ^^